포스트 팬데믹 한국사회의 진로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코비드-19,
한국사회의 때늦은 성인식

눈떠보니 선진국

- 봉준호 윤여정 BTS 오징어게임
- K방역 K배터리 K디지털 K반도체 K조선
- UNCTAD
- G7
- 일본의 반도체 제재와 오퍼레이션 '미러클'
- 한국 국채5년물 CDS 프리미엄 미/독/영 다음 4위! 일본에 역전!

결코 쉽지 않았던 길

2차대전후의 독립국
냉전의 최전선
한국전쟁의 폐허

결코 쉽지 않았던 길

익숙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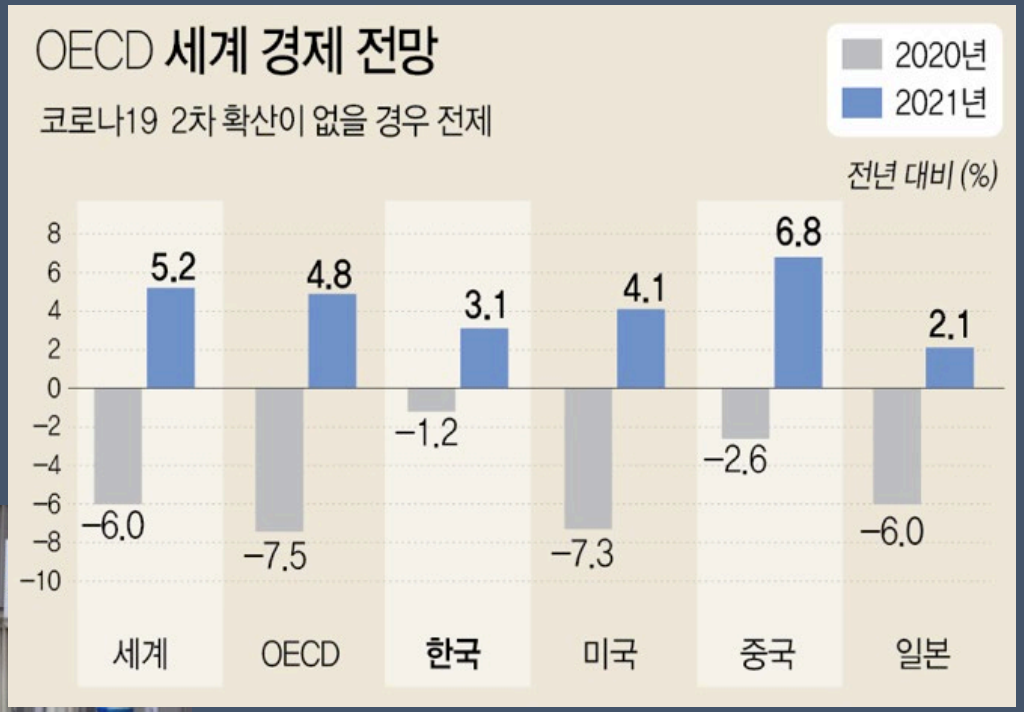
Winning Spirit!,
집단으로서의 승리 경험

IMF 경제위기

주락하는 금값! 금테크의 모든 것!
지금은 금을 사야할 때 vs 아직 때가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장롱 속 금반지를
들고 나왔던 금모으기 운동

6.29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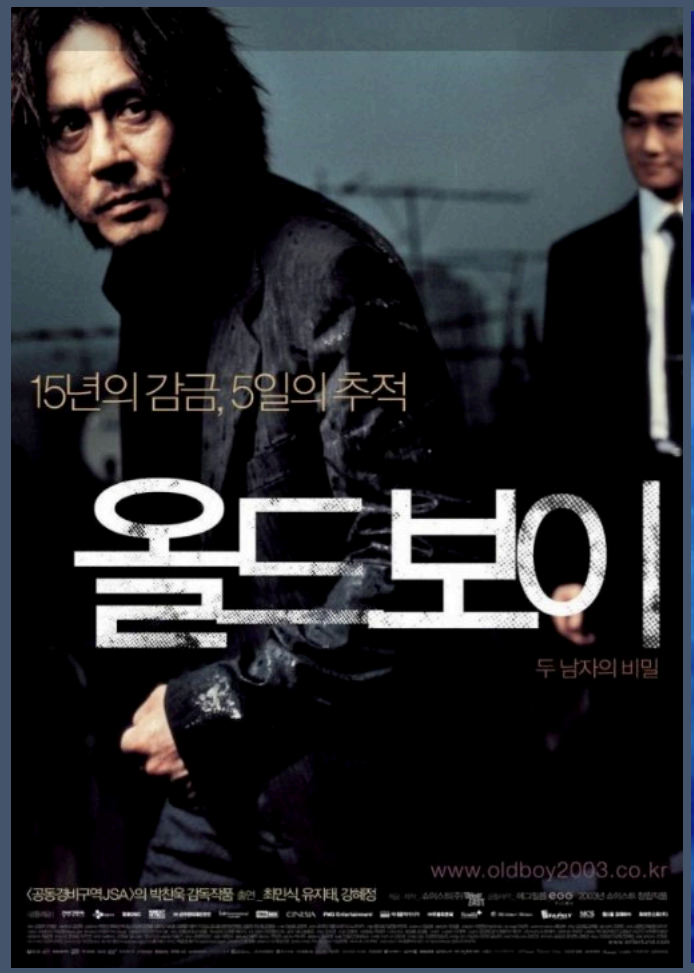
일본의 경제제재와 코로나 환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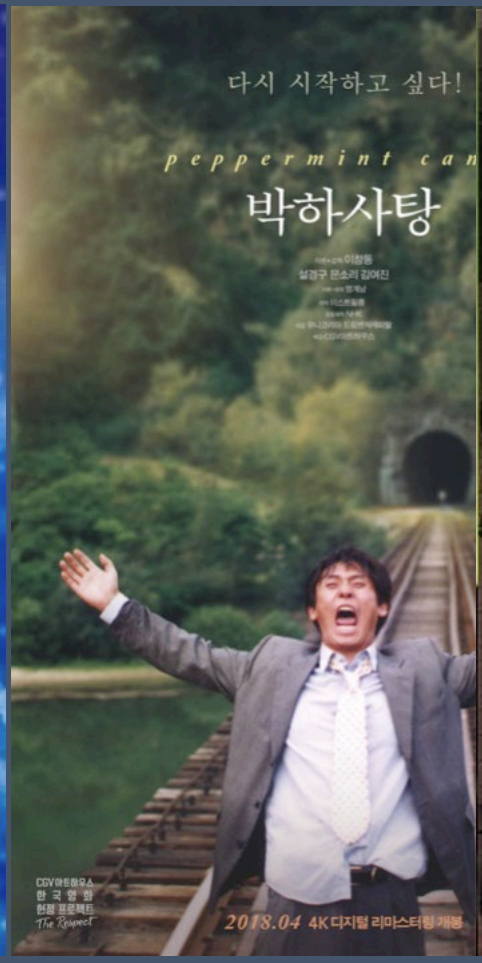


어떻게?

K-Pop, K-Drama의 경우

1996~2006 한국 영화의 황금기





1996년 사전검열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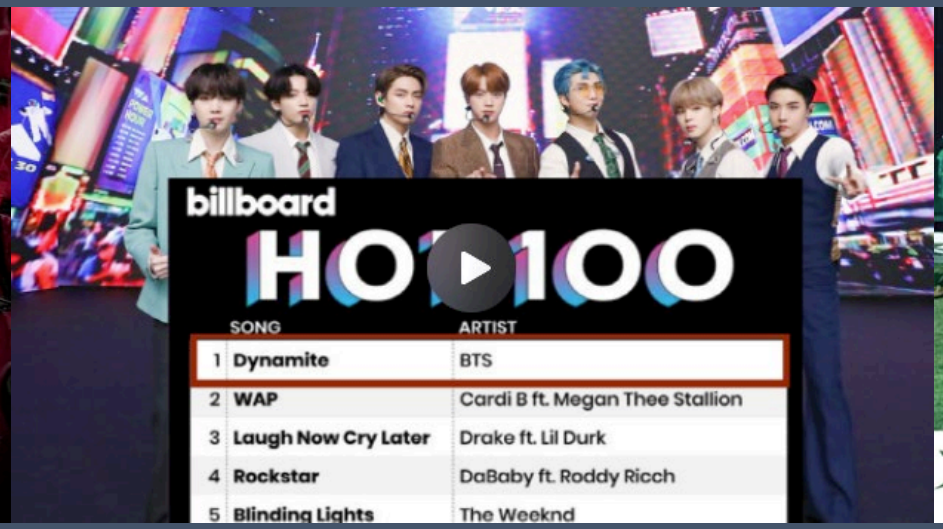
- 배호 ‘영시의 이별’
- 조영남 ‘불꺼진 창’
- 이장희 ‘그건 너’
-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의 비밀 '뉴런의 자유결합'

스티브 잡스의 픽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실험 문화
실리콘 밸리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And Now!

Squid Game



B.T.S.

Parasite

과제들

정의(定義)하는 사회

정의(定義)하는 사회

- 세계 최고의 후발추격국
- 어떻게(How)에 최적화된 사회
- 정답은 주어지는 것
-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
- 산업사회의 표준
- 4차산업혁명기
- 2개의 선택지

백서(白書)와 녹서(綠書)

- **산업4.0 / 노동4.0**

- 첫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 둘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셋째,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 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넷째,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경우 인간 노동을 보조하 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계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
- 다섯째, 미래의 직업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 여섯째,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질문이 해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내게 지구를 구할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쓰고, 나머지 5분동안 그 문제를 풀 것이다."

- 아인슈타인

타협하는 사회

타협하는 사회

- Deal!하는 사회
- 계약하는 사회
- 공론화하는 사회
- 협약하는 사회

조선시대 중독과 신독(愼獨)의 사회

- “바라옵건대 저자의 목을 쳐 저잣거리에 내걸어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소서”

-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도덕함’은 학문적 탐구로서의 윤리학 공부나 윤리 사상사에 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에 기반을 둔 관심과 분석, 그 도덕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과 실천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독일의 반성, 보이텔스바흐 협약

- 강제적인 교화(敎化)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입장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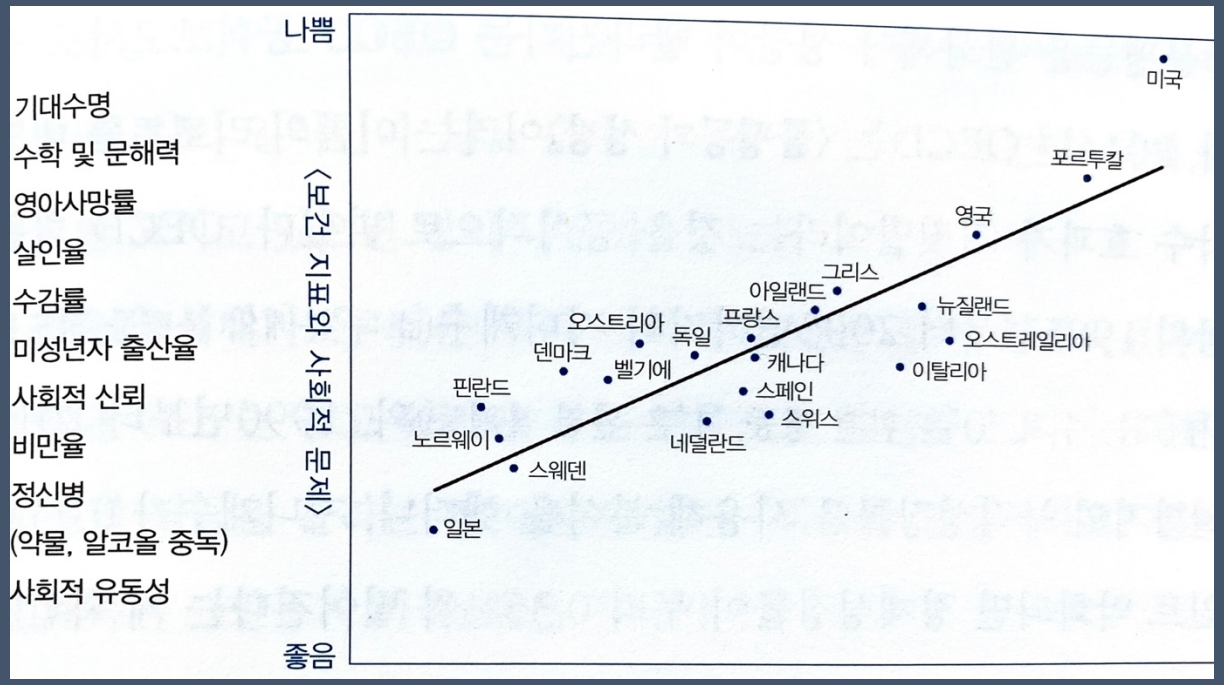
정치 교육의 목표

-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새로운 지표

서른이 넘어서도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는 사람

사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빈부 격차



기대수명 / 문맹률 / 영아사망률 / 살인 / 수감률 / 미성년자 출산율 / 사회적 신뢰 / 비만 / 정신병 / 중독 / 사회적 유동성

사회의 건강지표는 GDP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빈부격차순으로 비교하면 거의 Y=X에 맞먹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경제성장에 가장 나쁜 것, 불평등

< 국제기구의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OECD(2014)	IMF(2014)	ILO(2015)
· 소득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임	·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 · 재분배정책이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옴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축소될 경우, 세계총생산은 3조 7000억 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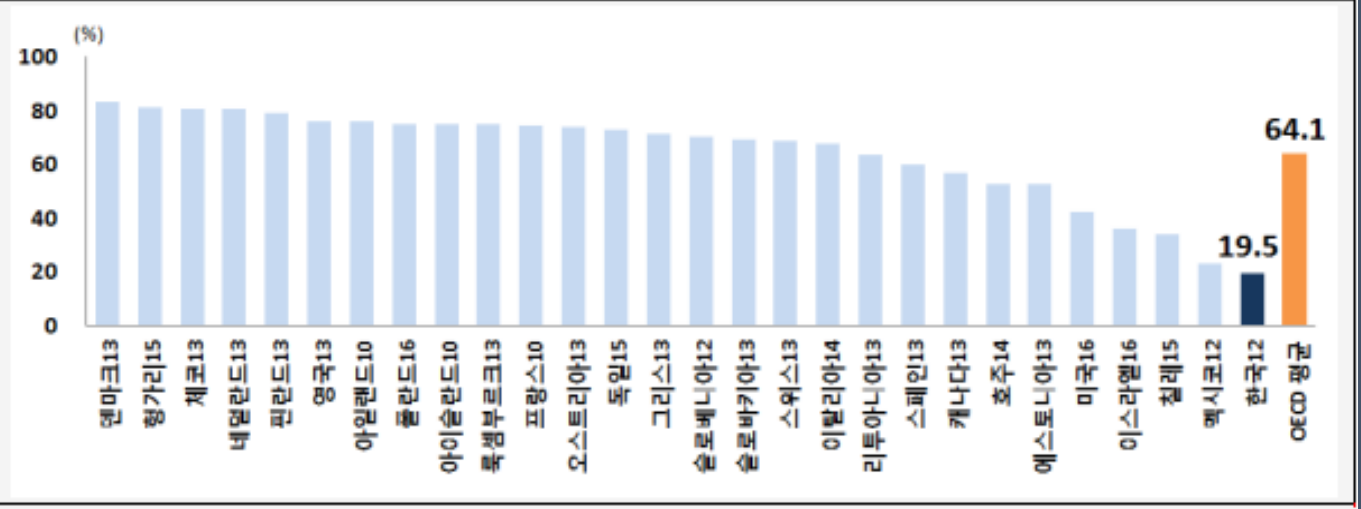
자료 : OECD(2014),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MF(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LO(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5: The Changing Nature of Jobs".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무려 0.35% 포인트씩 떨어졌다.
소득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

OECD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성장률을 분석 틀로 사용해 분석

빈곤탈출률

< 국가별 소득재분배효과: 빈곤탈출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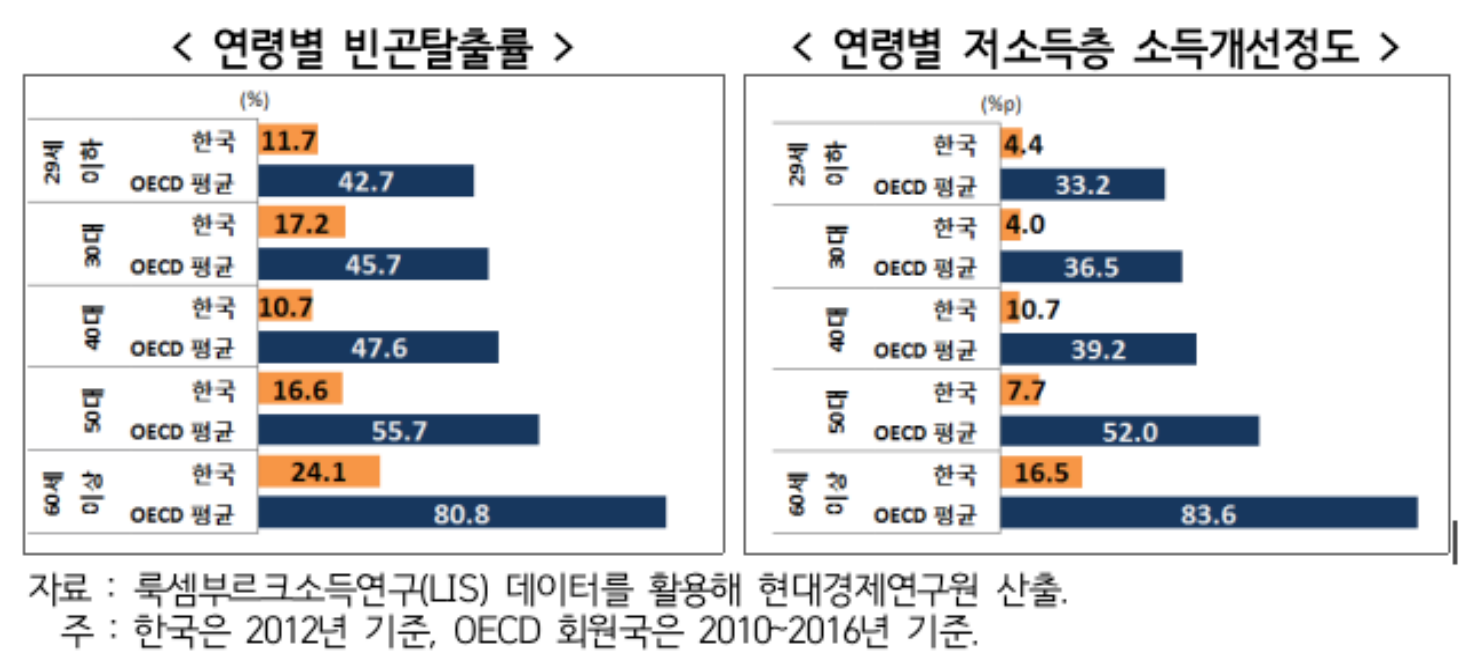
자료 :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분석 가능한 OECD 28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 (2016년에도 24.7%)

※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조세재정정책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노인에게 특히 가혹한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자료 :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한국은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은 2010~2016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층 탈출률은 평균 80.8%로 매우 높은 편, 연금정책을 포함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반면 한국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24.1%로 매우 미미한 수준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 10만명당 26.9명. 70대 46.2 명. 80세 이상 67.4명 (2019년 기준)

미래를 준비해야할 교육

- 매킨지 최신기술트랜드 2021
  - 향후 10년간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
- '4지선다'의 종언
  - 주입식 암기교육의 실효(失效)

  정답이 없는 미래

  불확정성만이 확정적인 '뉴 노멀'

실질문맹률

- 대한민국 성인의 실질문맹률 세계 최고
- 다른 나라들은 30~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 서서히 감소
-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
-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 공부에 염증을 느끼게 하는 주입식, 과도한 입시교육

- OECD 2013년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면접조사

디지털 문해력

- 피싱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 정보신뢰성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최하위
-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에서 최하위
-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 교육을 받았는가?” 평균이하
-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

- OECD <국제학업성취도(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

뉴런의 자유결합을 보장하는 사회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사회
토론하고 타협하는 사회
함께 건강한 사회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함께 잘 사는 법을 익히게 하는 사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